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4호 [루체 제25773호] 주제 106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남도 파일군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에 세상이 부럽도록 희한한 파일대풍을 안아온 파수의 고장 황해남도 파일군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

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상 유헌대장 서홍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인 김용수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파일군 위원회 위원장 오인남동지, 파일군인민위원회 위원장 여천수동지, 파일군농업경영위원회 위원장 황칠수동지를 비롯한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전례없는 파일대풍을 마련한 사랑을 보여드리고 있어 삼가 그리움의 편지를 올린 지난 9월초부터 이제 나저제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최고령도자동지를



자기들의 고장에 모신 파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설碍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파일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토해하시고 우리 나라 파일생산의 중심기지답게 파일생산량을 선진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리는면서 나서는 파일파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들을 위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산악 같이 펼쳐나선 파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매정보의 파수발을 새로 개간하고 질좋은 훈보산비료를 비롯한 유키

질비료를 생산하여 매 파일나무마다 시비하였으며 해안연선 60여리 구간에 방풍림을 조성하여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농약생산공정을 일찌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각종 농약들을 연구생산함으로써 가물파 고운현상이 지속된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지난해보다 정보당수확고

률 2.5배, 특히 사과는 5.8배로 늘어난 기적같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파일대풍을 마련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

다고 하시면서 당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에 파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파일군학명사적관과 파일군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파일군학명사적관과 파일군연혁소개실에는 군을 세계적인 대규모의 파원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불멸의 령도자록을 새기시며 세상에 자랑할만한 청춘파원으로 가꾸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곳 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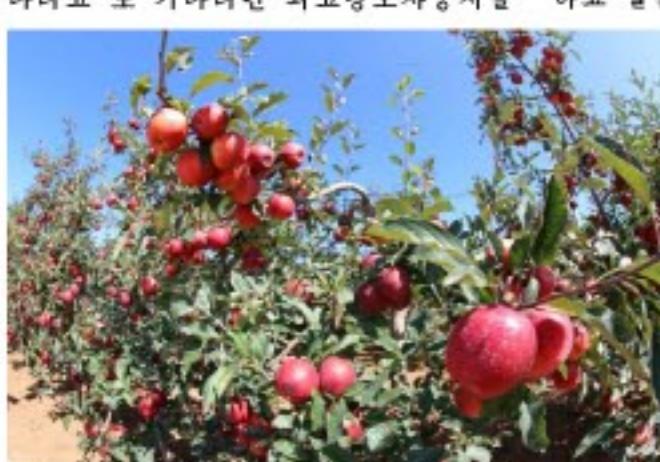
찾아오시여 파일군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전지개벽의 혁사를 수놓아온 자랑찬 발전행로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1년 11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파일군을 돌아보면 잊지 못할 역사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어려차례 파일군을 찾으시여 우리인민들에게 맛좋은 파일을 안겨주시며 고마울쓰신 우리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현신파로고가 있었기에 파일군의 오늘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파일군학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은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함축된 곳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을 전국의 본보기답게 잘 꾸린데 맞게 이곳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네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 데 적극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수연구소를 찾으시고 분석실, 정보실, 전자열람실 등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수연구소에서 과일생산을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 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 성과를 과수농장들에 널리 도입하였으며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재배

하고 종자개량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매작업반들이 과학적인 과수작업을 진행하도록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실현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망대에서 과일군의 전경을 부감하시고 과수밭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눈 뿐이 아득히 펼쳐진 청춘파원을 바라

보느라니 정말 기분이 좋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하시면서 시인들이 이곳을 돌아보면 아마 좋은 시구절이 떠오를것이며 창작가들은 『칠령아래 사파바다』와 같은 명곡을 내놓게 될것이라고 기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지가 휘여지게 달린 사과밭들을 한 알한알 만져보시며 이런것을 보고 땅이 깨지게 열매가 주렁겼다고 말한

다고 하시면서 정보당 70~80t의 과일을 생산한 과수작업반들이 수다하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그루당 평균 200알 이상, 최고 300알이상 탈린 사과나무들도 많다는 데 끔찍이도 많이 달렸다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수천정보의 과수밭을 다 돌아보고 설은 심정이며 보고 또 볼수록 기쁠과 환희로 가슴이 들썩인다고, 우리 인민들이 과일군에 펼쳐진 과일대풍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를 생각하니 쌓았던 피로가 말끔히 가서진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희한한 과일대풍을 안아온 과일군임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자신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것을 꼭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밤걸음이 쉽게 뗄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한그루, 한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 자기들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과일군인人们的 당에 대한 충성심, 불타는 애국심이 어려있어 사과밭들이 더 봄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일군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현을 위한 투쟁에서 온 나라의 전렬에 내세워야 할 전령단위, 모범단위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

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고 특별상금을 배려해주시는 하늘같은 은덕을 배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일군이 올해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과수의 기지를 들고나가는데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문제, 좋은 과일품종을 늘릴데 대한 문제, 지력을 높이고 병충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과일의 토톡한 맛을 살리며 과일가공공정을 확대화하는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 실운영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수 있도록 래지목장들의 운영을 잘하는데 대한 문제, 방울식 관수체계를 확립하며 지대적특성에 맞는 자연에 네르기발전소를 건설하여 필요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대한 문제, 과일운반용료전기재와 지게차, 동력분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과수기계들을 더욱 보강하는데 대한 문제, 방풍림을 완벽하게 조성하는데 대한 문제 등 과일군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사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 자기들의 고장에 불멸의 영도자축을 새기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풂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의 승고한 인민 사랑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질단적혁신을 일으켜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비약을 일으킬 불같은 열의

전국농업부문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에 참가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무량종자와 과학적인 엄نة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뿐만 아니라 노동적인 농사면적을 늘리고 노동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 암호합니다.』

풍요한 사회주의전야마다 풍물극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농업부문에서의 승리의 승리와 함께 농사를 지닌 시기처럼 부영식으로 가 아니라 논비, 강생은 농사처럼 중시하며 참도리를 단단히 하고 말과 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는 밀보리농사에서도 통가을을 두르고 우렁이유기농법도 되고는 가을에 업마진 열주군 풍물극동농장에서는 가을을 보려서 뿐만 아니라 기술전습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누구나 미제와 적대세력을의 악단적인 제재압박과 세우고 구심한 풍물극에서도 풍요한 가을을 알아온 기쁨과 신심에 넘쳐있었다. 가을보리농사로 잘 지어 농사에 창안하고 유훈을 기어이 관찰하고 미제와 적대세력의 비열하고 극악한 행위에 풍구명을 내는데 적극 아버지 및 드는 일의인기 기술전습회에서 친가지라도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전습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일인간.

내각파 농업성에서는 유포식 생산과 관련하여 어서 신이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및 나에게 관찰하고 5개년 계획 목표를

기여로 점명하기 위한 두정에

제작된 재체 압설 평생을

으로 만들고 농업생산을 지속적

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우렁이유

기능법도입은 매우 철학한 문제

로 나설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포식 생산에

서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밀보리농

사를 지닌 시기처럼 부영식으로

가 아니라 논비, 강생은 농사

처럼 중시하며 참도리를 단단히

하고 말과 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는 밀보리농사에서도 통

가을을 두르고 우렁이유기농법도

되고는 가을에 업마진 열주군

풍물극동농장에서는 가을을 보

려서 뿐만 아니라 기술전습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누구나 미제와 적대

세력을의 악단적인 제재압박과

세우고 구심한 풍물극에서도 풍

요한 가을을 알아온 기쁨과 신

심에 넘쳐있었다. 가을보리농사

로 잘 지어 농사에 창안하고

유훈을 기어이 관찰하고 미제와

적대세력의 비열하고 극악한

행위에 풍구명을 내는데 적극

아버지 및 드는 일의인기 기술

전습회에서 친가지라도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진지

하고 열정적이었다.

전습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료를 5t, 소석회를 0.5-1t 이상 무조건 투여 지역을 확고히 높일 예에 깊은 어운을 양주었다. 통북협동농장 청년분조의 현대적인 우렁이양식장을 풀어보면서 청자들은 당진체를 중도 풀며 밀보리농사의 대 풍성한 문제에서 주제농법의 요구를 절제해 우울한 데다 한 문제를 강조되었다.

같은 날 밀보리농사를 풀어놓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찰인이 당시 정책

으로 높이 평가되는 문제였다.

발달지역은 많은 시대에서는 일

을 헤친 뒤 투여하기 위해 그루로

풀이나 경영이 미흡한 지역

물을 재배하며 청자들은 밀

과 함께 풀을 미흡한 낙오를 때

반란들이 밀보리농사에 대한 참가

자들의 의욕과 자신감을 부여

하고 우렁이유기농법을 풀어놓았

습니다. 그들이 풀을 심고 풀을

풀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들이 풀을

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모습

평천구역에 살고 있는 혁명가유자녀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가유자녀들은 부모들의 냇을 이어 혁명의 끊을 계속 꾸워야 하며 당의 선군혁명도를 따라 주체혁명업적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우리 당의 핵심과 갈간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1월 어느 날 평천구역 풍교2동에 살고 있는 정경수녀님의 집은 그나마 간격과 풍부으로 새차에 끌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설령설에 즐음하여 단장대축학원을 방문하시고 표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였다는 소식에 절한 평천구역 안의 혁명가유자녀들이 저마다 찾아와 동진된 심정을 드러하고 있던 것이다.

『친이들을 따뜻한 사랑의 환송에 애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물들을 보내주었다.

참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가당치 않은 곳이 없었다.

이들은 조선혁명박물관을 예상 조선의 대국보관으로 꾸몄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게 만들어 나갈 불리는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평천구역 안의 혁명가유자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물물의 업적을 깊이 떠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건설현장들로 충령의 자속을 더욱 풍기기로 이어나갔다.

몇 해 전 혁명의 수도 평양의 장대재언덕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게 만들어 나갈 불리는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날 그들은 혁명가유자녀들

은 원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 도 여러분에게 걸쳐 많은 지원

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생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물었을

중 실하였던 무모를 쳐 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지휘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빠는 순간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빠온는 것 같았소.』

『정말이지

